

한생의 지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차광수동지에게 어느 한 농촌마을에 내려가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그에게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무산대중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대중을 떠나 자꾸 우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후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회고하시면서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자신께서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언제나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회고록에 감회깊이 쓰시였다.

인민적품격이나 인민적인 사고방식도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는것,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지론이였다.